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0호 【루게 제24743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평양시군민대회 진행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공화국을 기어아얍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대조선《인권》소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보복열기는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원수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유엔무대까지 더럽히면서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남조해내는 극도의 위협제선에 이르렀다.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거둬들이는 경교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된 이 특대형모략극을 우리의 주권전복을 노린 대조선압살정책의 가장 극악한 최신판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남강도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광란적인 모략소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릴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가 25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김일성광장은 파멸치한

정치사기극의 극치인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극을 남조해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선군의 서슬푸른 총대로 무자비하게 쳐부실 원수격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쳐있다.

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란이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뜨우자!》,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것을 전면 거부, 전면배격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자!》,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와 《결사

옹위》, 《일심단결》, 《최후승리》라고 쓴 글발들이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 시내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사회주의조국을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무관단성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대회는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장령 사령관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주제의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선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제 인민군장병들은 지금 남강도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릴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침략으로 생겨나고 살려온 침략의 원흉 미제를 철저히 소멸해버리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도, 진정한 인권도 담보할수 없으며 그에 추종하는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당과 같은 오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번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더욱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똑똑히 모르고 마구 해담비면서 개심의 마지막회까지 다 차버린 미제에게 이제 차례일것이란 무시무시한 보복타격과 최후의 멸망뿐이다.

니절한 불음으로 침략의 명분을 만드느라고 오그랑수를 쓰는 미제와 속시원히 맞붙어서 결판을 내자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립장이며 대결광중에 열이 떠서 제 죽을짓만 플라하는 총악한 원수들을 더이상 용납할수도, 살려둘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배두산총대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연설자는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는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승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삶의 태양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견결히 옹위하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평도만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군에 빨찌산식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며 혁명선열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언제든지 멸적의 불을 내뿜을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일단 명명만 받으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백두의 폭풍과 같이 적의 아성을 단숨에 초토화해버리고 남강도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최후멸망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겠다는것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 김혁남이 연설하였다.

그는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고안해낸 파멸적인 정치적사기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피폐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들고 나왔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1%의 특권층속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99% 절대다수가 빈궁에 허덕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조차 부지할수 없이 종당에는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권생지옥 바로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의 험악한 현실이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온갖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다 보장받으며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가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국도 못 씻는 주체에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벌려놓은 비열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에 먹칠을 하고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로물적인 선전포고이라고 단죄하였다.

무엇하해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건드리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려고 《인권》나발을 환장이 된 남강도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피폐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들고 나왔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로씨야 연방 방문과 관련한 보도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인 최룡해동지는 18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올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로씨야연방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와 친서를 최룡해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특사와 대통령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호혜적인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뜻깊은 2015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가일층 심화시키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김형준 로씨야 우사료대통령보좌관, 이고르 모르콜로프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최룡해동지는 2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로씨야연방 외무상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경제, 무역 및 인도주의분야의 쌍무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쌍방은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다음해에 공동의 경축행사를 성대히 조직하며 대표단교류를 비롯한 두 나라사이의 레양과 협조를 활발히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을직접들을 중지하고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문제를 평화

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회담재개에 유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방문기간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과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은 안드레이 까르파블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로씨야 원동발전상을 각각 만났다.

쌍방은 군사, 경제, 무역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하였다.

모스크바제류기간 특사와 일행은 레닌묘를 방문하였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과 크렘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 크렘린 등을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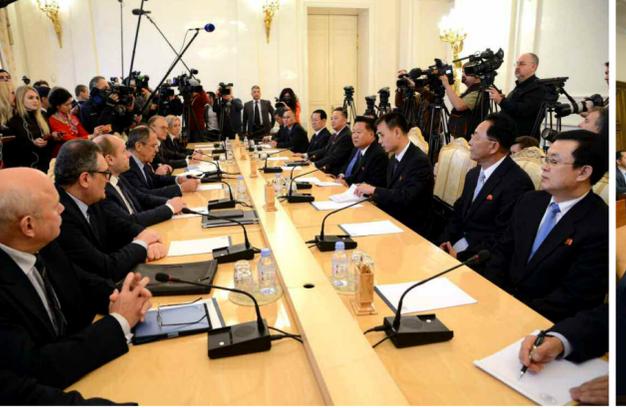
특사와 일행은 21일부터 로씨야연방 하바롭스크변강과 연해변강을 방문하였다.

특사일행은 바체슬라브 슈보르트 하바롭스크변강행정장관과 올라지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변강행정장관을 각각 만나 날을 따라 종계 발전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 맞게 공업, 농업, 립업, 교통운수, 체육, 문화 등 분야에서 지역간 협조와 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특사일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연방방문의 나날에 다녀가신 하바롭스크에 있는 로씨야정교사원인 성자 인노첸제 이르쿠츠키사원, 향토박물관, 올라지보스토코의 《이그나트》상업센터, 《올라드 홀레브》항공 등과 로씨야연방무력 동부군관구산하 제5군 지휘부, 태평양함대 군사력사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이번 로씨야연방방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1 면에서 계속**

우리 로동계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신평안대로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초강경대응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악, 대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명만 내리시면 인민군대와 함께 전민항쟁에 용감 떨쳐나 가즈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을 썰도 없이 쓸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을 신군조선의 최후승리로 빛낼 결의를 표명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만경대 남새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영복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천만군민이 로동당만세를 부르며 인간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수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나라의 정사로운 토의하고 농장원들의 아들딸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며 국가에서 공립같은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안겨주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우에 독버섯처럼 떠난 미국,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하며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마구 쫓아오는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다.

음모와 날조로 세상사람들을 기만하여 《인권》문제를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는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력대로 미국은 정치적으로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같은 형형색색의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여온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이다.

우리는 애당초 미국주도하의 불순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결코 고안해낸 어떤 《결의》라는것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참다운 인권이 모욕당하고 자주권과 국권이 침해당하는것을 수수방관할 우리 인민이 아니다.

연설자는 전제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쌀로써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전우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청년들의 이름으로 유엔의 이른바 《인권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극악한 도전으로, 불법무법의 정치협잡물로 낙인하고 이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온갖 사랑과 혜택으로 새 세대들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한사코 진북해보려고 미쳐달뛰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징벌하며 그 씨종자들까지 신다면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포

를 장쾌하게 쏘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등의 구호들이 쓰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기세드높이 평장을 누벼나갔다.

그들의 열광마당에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권위를 감히 훼손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와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포

대오에 수풀처럼 솟은 《조국결사수호의 맹세로 천단심장이 불탄다!》, 《복수는 총대로》, 《반미대결전》, 《인권결의》 전민배격》, 《미제는 평화의 파괴자》, 《평명만 내리시라!》 등의 선전화들과 손구호들에 반영되어 있었다.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시위대오마당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거부감과 병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천하에 못된것만 일삼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야말 참가자들의 열정의 함성이 새차게 울려나왔다.

평양시군민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피사하였다.





# 절세위인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시고 비약의 나라를 펼쳐온 뜻깊은 한해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 1뼘을 맞은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 전후복구건설의 첫 시기부터 건설의 대번영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도하신 1뼘을 맞이한 이 시각 우리의 귀에 메아리치는 뜻깊은 말씀이 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대한원수님의 령도사적이 많이 깃들여있는 대학이라고, 대한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길을 걸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고, 대학의 60년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에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라고 찬탄사연을 담아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들의 귀중한 령도의 손길에 붙잡혀 이어져오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력사는 이어 교직원, 학생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후회해 해주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주제적건축의 재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이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전승의 해에 태어난 뜻깊은 대학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하루빨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이미 전쟁의 승리를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건설기술인재문제를 풀기 위하여 건설대학을 새로 내올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주제 42(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복구건설에 많이 요구되는 건축기술자, 건설지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설대학을 창립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리고 대학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한의 세멘트와 자재, 한강의 벽돌이 귀하니 그때 공사건설에 쓰일 귀중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게 하시였으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도서들과 교구비품들을 보장해주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셨다.

하여 대학은 짧은 기간에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그해 10월 1일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주제 46(1957)년 1월 어느날 대학의 책임일군을 몰가까지 부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 데 대학형편을 좀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책임일군은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어올라 어머니수령님의 배려로 대학의 토대를 기본적으로 닦아놓고 교육사업을 하고있으니 별로 애로되는 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가 나라형편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에게 아직은 모든것이 풍부하지 못하지만 오늘날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며 미래를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좀 곤란을 겪더라도 민족적부양사업에 옹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실험실비품을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력사는 대를 이어가며 이런 위대한 사랑과 믿음속에 흘러왔다.

대학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를 통째로 맡겨주시고 설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창조적적정의를 불을 지펴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 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해 얼마나 깊이 마음쓰시었는가 하는 것은 평양건설전제대학으로 되어있던 이 대

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숭고한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은 창조와 건설의 년대들마다 들끓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자기의 생스러운 사명을 다하여왔다.

이 땅위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는 이듯 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의 피타는 사색과 열정, 고귀한 밤방울이 력력히 스며들어있다.

백한 그 나날에 대학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심도기초리론을 개척하여 국제학술계를 뒤흔들어놓은 놀라운 성과가 기록되었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과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도 배출되었다.

이런 위대한 력사가 깃들여있는 곳이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한몫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자라는 교정이라는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셔야 할 일, 가셔야 할 곳도 많았었지만 굳이 이 대학을 찾으신것이었다. 자신께서 평양

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어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시고 한다고,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주어야 하겠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올해에도 수많은 최신형컴퓨터를 보내주도록 하시어 대학의 교육조건을 더욱 훌륭히 갖추어주시는 원수님이시었다.

위대한 태양의 추복을 받아안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은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며 지난 1년사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렇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손길에 전후복구건설의 첫 시기부터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경사에 빛나는 력사를 새겨놓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앞으로도 이 땅위에 세계적인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우수속출하며 일떠세우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끝없이 빛내어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병철  
사진 본사기자 김병철

### 문명강국건설의 전초병

◇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 세기 주제적발전의 선구자, 기수가 되기 위하여 산악같이 펼쳐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로운 주제 100번대에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열어놓았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자, 건축가들을 부르고있습니다.』

대학의 책임일군인 김영배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있었기에 대학은 이처럼 1년만에 건축부문의 학습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걱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난 1년간 평양건축종합대학이 거둔 이런 비약적인 성과는 전적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대학의 교육과학연구사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시려고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자는 총정의 정신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인간의 정신력이 발동되지만 하면 극복 못할 난관, 절망 못할 오해가 없다는것은 장구한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 확증된 불변의 진리이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값없는 정초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룩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

생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어찌 심장이 뛸지 않고 피가 끓지 않을수 있랴. 사실 교육부문에선 눈에 띄는 성과를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내놓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 대학에서는 세월을 주름잡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었다.

대학의 당조직과 책임일군들, 교원, 학생들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영광을 빛내어지는 각오를 안고,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자는 맹세를 안고 한사관같이 펼쳐나갔다.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결사관철의 정신은 기적창조의 근본원인이었다.

◇ 세계적인 건축물들로 나라를 뒤덮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오늘 그 어디서나 유능한 건축인재들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은 그 기세, 그 기백, 그 열정을 순조로 늦추지 말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으로서의 값있는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더욱 다그치며 리본과 실린, 교육과 생산리동을 결합시켜야 한다.

지난 1년동안 거둔 성과를 도약대로 하여 더 큰 보폭을 내걸으며 비약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미술실기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에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를 가지고 다기능성감각재를 생산하고있는 원 연구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처럼 우리의 건축이 세계적으로의 건축으로 되게 하려는 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 과들을 끊임없이 내놓아야 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나감으로써 위대한 건설시대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 활짝 열어나가는 데서 개척자, 선구자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조국과 인민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고있다.



### 하루 빨리 교육현대화의 신호탄을

#### 3년을 1년으로 앞당긴 교육사업 성과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상상할수 없이 빠르다. 때문에 예상과 같은 사업방식으로 오늘을 보고한다면 침탄은 아득히 멀어 보인단다.

침탄을 돌파하고 세계를 따라 앞서기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지난해에도 그 전 해보다 훨씬 많은 교육과학기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그것의 3배를 넘는 다. 참으로 기적이라고 할만 하다.

이런 기적적인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 이후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는 비상히 고양되었다. 하지만 전례없이 총만된 사업의욕에 비해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위한 강좌, 학부, 단과대학사업계획들은 획기적이지 못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시야가 트이지 못한것이였다. 아무리 열의가 높아도 안목이 넓지 못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

육현대화의 신호탄이 우리 대학에서 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 이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

당원회의의 지도밑에 홍성룡 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강좌, 학부, 단과대학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세계일류급대학들이 갖추고있는 정보들과 발전속도가 대학의 현재실재자료, 사업계획과 비교분석되었다. 토론이 심화될수록 대학의 사업방향과 목표, 수행시간 등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적인 년간 교육사업계획이 작성되었다.

모든 과목교과안을 100% 전담강의안으로, 백수실제의 전공 및 전공기초과목교육내용현대화, 수강인원의 절반과목적화, 첨단강의안작성, 200여건의 교과서, 참고서집필...

지난 시기같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방대한 목표였다. 그러나 목표 그자체가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어떻게가는 수행방향과 방도가 따져야 한다.

이것을 누가 내놓아야 하는가. 일군들이었다. 무조건 하라고 요구만 하여서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 일군들이 항상 머리를 쓰고 사색하여야만 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킬수 있다.

대학교무일군들과 교수지도 일군들, 과학연구부 일군들사이

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세부목표들에 대한 수행방도가 토론되었다.

예컨대 전자공업과 대미제강의안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강좌를 시범단위로 정하였는가 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강구되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 보내주신 건축, 원림목화, 시공을 비롯한 건설부문 최신자료들과 관련한 일군들의 평가를 받은 600여건의 건축형성안들이 교육내용현대화의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를 위해 한시바빠 최신자료들을 다시 분류하여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잘 쓰이는 위치에 게시해주고 절세위인들의 평가를 받은 자료들을 분류체계화하여 도서들을 만들도록 하였다.

대학일군들이 잘한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벌린것이다.

대학의 기본정사업무에는 강좌별경쟁도표가 있다.

실적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붉은 줄, 이제는 마치 막걸리처럼 거저 올라갔지만 아직도 교원, 연구사들은 이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앞선 사람만큼은 마음의 탕개를 더욱 바삭조이고 뒤선 사람들은 보다 분발하고있다.

대학일군들은 교원, 연구사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혁신적으로 하고있다.

지난 시기의 평가사업에서는 교수연년이 오랜 교원, 연구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대학에서는 철저히 실적을 따져 보는 평가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많은 새세대의 교원, 연구사들이 높은 정치적평가를 받아안게 되었으며 그것은 대중을 향한 열의와 헌신으로 적극 추동해주었다.

대중의 양양된 사업열의는 드디어 눈부신 실적으로 이어졌다.

벌써만 보이던 현대화의 목표들이 모두다 점령된것은 물론이던 한 교직원에서 대학교원들이 특등과 1등의 영예를 쟁취하는 성과도 이룩되었다.

160여건의 교육방법, 경험소문본들도 발표되었다. 50여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를 수여받고 수많은 교원들이 10월 8일모범교사로, 세교수방법 등률중수우자로 되었다.

말그대로 지난 시기같은 3년동안 하였고 못다 내놓은 성과들이 단 1년사이에 이룩되었다.

3년을 1년으로, 교육현대화의 신호탄은 이렇게 날아올라야 한다. 일군들이 당의 사상관철정, 당정책옹호의 앞장에서 부단히 머리를 쓰고 사색하며 어제보다 몇배나 더 빨리 내달리는 오늘을,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따라앞서는 메일을 안아오면서.

본사기자 한경철

### 당에 기쁨드린 200여건의 건축설계형성안

지난 1년간 대학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200여건의 건축설계형성안을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것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칠 올해 대학의 많은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은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전두를 벌려나갔다.

특히 건축대학 교원들과 박사생원생, 학생들이 수많은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건축설계형성안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였다.

대학에서는 대상을 맡게 되면 즉시 실력있는 교원, 연구사, 학생들로 설계력량을 편성하고 긴장한 전두를 벌려 무조건 설계 기일에 수행하는 혁명적기쁨을 확립해나갔다.

이와 함께 대학일군들이 여러 차례의 설계행령회를 열고 대중의 지혜를 합쳐가며 하나하나 다듬고 완성해나갔다.

위성과학자주택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창조물들마다에는 이렇듯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고집이런 사색과 탐구, 열정이 뜨겁게 비쳐있다.

기발한 마려된 출중한 성과

올해 어느 한 설계단위에서는 중요한 대상공사와 관련한 실적을 완성하였다. 이대 한 단칸다 수많은 자재와

### 1년사이에 5종의 첨단실험설비 연구제작

건축재료학부 건설실험분석실 실장 한철순, 연구사 김봉복 동무들은 자재의 힘으로 5종의 첨단실험설비를 연구제작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학현지도 1뼘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달려왔을 때 그것들을 다 해낼수 있었는다고 격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건설을 철저히 국산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편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실험설비들을 기어이 만들

다. 새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적은 돈을 들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자랑해내셨던것이다.

그의 착상이 실패 밀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해당 일군들과 설계기술자들이 손과 가졌다. 그후 얼마 지나 그 논의는

사라져버리고말았다.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의 착상이 옳았다는것이 증명되었던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일군들은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실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어느리라 결실품과 시작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없이 5종을 끝내내 다 완성하였으며 올해 9월에 진행된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원발전대회에 출품하여 높은 평가를 함께 과학기술성과기록증을 수여받았다.

대학에 세계적 최첨단이라는 절사관철의 정신은 이밖에도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 선군조선의 기상을 누리에 떨친 세계력기강자들

##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경이적인 성과를 두고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력기선수들의 편이온 국 제력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의 대고조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민족의 자랑이다.



